

추모식사

권이혁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2005년 5월 8일은 古下先生님의 제115회 誕辰日입니다. 마침 來日이 日曜日이어서 하루 앞당겨 오늘 追慕式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先生님께서 逝去하신 지 60년이 되는 해이자 광복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韓·日 國交 正常化 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고 보니 참으로 感懷가 無量하고 어느 해보다도 先生님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이 자리에는 황인환 報勳審査委員長님, 金學俊 東亞日報社長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枉臨하시어 先生님을 追慕하고 推仰하고 계십니다.

由緒깊은 中央高等學校 鄭昌鉉교장께서 先生님의 略傳을 奉讀해주셨습니다. 略傳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先生님께서 걸어오신 발자취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鄭교장님에게 感謝드립니다.

光復 60년이 되는 해이기는 합시다마는 果然 우리들이 참다운 光復을 맞이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선뜻 肯定的으로 말하기가 힘든 것이 現實입니다. 國土가 兩斷되었고 南北 對峙關係가 持續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先生님께서 構想하시던 光復과는 距離가 먼 것이 아니겠습니까.

建國創業의 理念을 밝히시고 偉大한 經世方略과 治世精神을 펼치시던 先生님께서 12월 30일 새벽 6시 15분 暴徒의 凶彈으로 이 世上을 떠나신지 60년이 되는 것이니 더욱 참다운 光復에 대하여 哀切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膾炙되고 있는 先生님의 語錄 두 어 가지를 옮겨 보겠습니다.

日本 留學을 주장하시는 理由를 先生님께서 “敵을 치자면 먼저 敵을 알아야 한다는 이치에서”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지지 않으려면 먼저 그들을 알 必要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을 생각해서 앞질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日本 留學中 韓日合併에 衝激을 받아 自決을 決心하고 歸國하여 彷徨하시다가 새로운 決心으로 東京에 돌아가셔서 친구들에게 새로운 行動方向을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이제부터의 光復運動은 過去의 義舉 觀念에서 벗어나야 한다. 첫째 한 두 사람 또는 한 두 단체의 光復運動이 아니라 全民族的인 集團運動이라야 할 것이고, 둘째 그 어떤 한 부분을 통한 光復運動이 아니라 政治, 經濟, 産業, 文化 등 各部分이 併行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教育事業을 해야겠고 産業을 일으켜야 하겠고, 동시에 金融機關과 新聞, 出版機關을 가져야 한다.” 참으로 앞을 내다보시고 그 對策을 說明하신 名言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獨立運動家·言論人·교육자·政治人으로서 先生님께서서는 남다른 行步를 걸으셨습니다. 先生님께서 쌓아 올리신 여러 偉業에 관하여는 이미 略傳奉讀을 통하여 說明되었고 이 자리의 모든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까닭에 몇가지 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獨立運動은 先生님께서 校長으로 계시던 中央學校의 宿直室이 策源地였으며 48인 지도자의 한 분으로 이 運動을 이끄신 先生님께서서는 1年半동안 獄苦를 치르셨습니다.

1921년 出獄하시자 마자 先生님께서서는 東亞日報社長에 就任하셨습니다. 당시 先生님은 31歲의 靑年이셨습니다.

첫번째 社長職은 3年間 계속되었는데 이 동안에 선생님께서서는 日帝의 彈壓을 무릅쓰고 物産獎勵運動을 展開하여 自立精神을 심어 주셨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民立大學設立運動을 적극 推進하여 日帝를 緊張시키기도 하셨습니다.

全國 主要 都市를 巡廻하면서 그 有名한 民族不滅論을 主張하시고 海外同胞慰安會를 통해 滿洲에 까지 社勢를 確張하면서 祖國愛를 呼訴하신 것도 이 때였습니다.

1924년에는 社長자리를 내 놓으시고 主筆로서 活躍하셨습니다. 1926年 3月 5日 蘇聯國際農民會本部에서 보내 온 3·1運動禮讚電報文을 계제하여 東亞日報는 無期停刊되고 主筆이던 先生님께서서는 8個月間 獄苦를 치르셨습니다.

1927년에 두 번째로 就任하신 社長職은 1936年 孫基楨선수 日章旗抹殺事件으로 東

亞日報가 無期停刊 되고, 社長職을 強制 解任 당하실 때까지 9年間 계속되었습니다. 이 동안에 先生님께서서는 變함없이 數많은 偉業을 達成하셨습니다.

1931년에 李舜臣장군 遺蹟保全運動을 시작하여 忠南 牙山에 顯忠祠를 建立 하신 일, 文字普及과 農村啓蒙을 兼한 ‘브나로드 運動’을 시작하신 일등은 周知되어 있는 業績 들입니다. 또한 같은 해에 萬寶山事件이 發生하자 先生님께서서는 ‘萬寶山事件에 대하여’라고 題한 글을 쓰시고 7月 5日字 東亞日報에 실리셨는데 이 글은 ‘韓國近代名論說’로 오늘날에도 識者들의 稱頌을 받고 있습니다.

1936年 8月 停刊때에는 張德秀부사장, 金俊淵主筆·설의식 편집국장을 비롯하여 많은 기자들도 신문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듬해 6월에 정간이 解除되었습니다. 1940年 8월에는 韓國民間新聞을 더 이상 발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東亞日報는 強制廢刊 되었습니다.

解放을 맞아 先生님께서서는 참으로 눈부신 活動을 하시면서 解放政局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政局의 變化에 따라 韓國民主黨이 創黨되고 先生님께서서는 首席總務에 추대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東亞日報가 重刊되어 선생님께서서는 세 번째로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先生님께서서는 言論活動과 함께 政治一線에서 解放政局을 풀어나가면서 나라세우기를 指揮하시다가 12월 30일 高邁한 55歲의 生涯를 마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엄청난 試鍊을 맞고 있습니다. 日本의 獨島 領有權 주장과 더불어 歷史教科書 歪曲으로 말미암아 韓·日關係는 어느 때 보다도 深刻한 緊張事態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政府는 ‘韓·日關係 4大 基調’와 ‘政府 對應 5大原則’을 마련하고 從來의 對日路線을 바꾸는 ‘對日 새 doktrin’을 發表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日本이 過去의 侵奪을 正當化하고 第 2의 侵奪을 企劃하고 있는데 對하여 우리들은 強硬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韓·日 國交 正常化 40周年을 맞이하여 兩國은 이 해를 ‘韓·日 友情의 해’로 정하고 多彩로운 行事가 進行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우리나라 TV드라마가 일으킨 韓流 물결이 日本 각지를 덮다시피 흐르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日本의 獨島領有權 주장과 歷史教科書 歪曲사태는 ‘友情의 해’를 송두리째 흔들어 냈습니다. 文化나 經濟 分野의 交流는 豫定대로 계속한다는 方針입니다. 緊張關係가 수그러들 氣味는 보이지 않

고 있습니다.

그런 中에서도 韓流의 熱氣는 식지 않고 日本 觀光團이 來訪하여 韓流의 發源地들을 訪問하고 25일 돌아갔습니다. 單一 觀光團으로서는 最大規模였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꼬일대로 꼬인 韓日關係를 解決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科學的이고 一時 方便性이 아닌 꾸준하고도 힘찬 外交的·文化的·歷史學的, 國際的 努力이 總動員되어야 합니다.

先生님 우리들 周邊에는 참으로 많은 變化가 繼續되고 있습니다. 國內에서나 國外에서 이러한 事情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때인 만큼 先生님이 더욱 그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自立性·自主性·慎重性을 바탕으로 하는 古下精神, 삶의 質을 向上시키고 文化國家를 이룩해야 한다는 古下精神은 언제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追慕講演은 釜山大學校에서 政治外交學을 擔當하고 계신 李哲淳교수가 맡아 주셨습니다. 李교수님에게 感謝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紀念事業會를 아낌없이 支援해주고 계신 朴維澈 國家報勳處장관님, 金昶植전長官님과 金學俊東亞日報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에게 眞心으로 尊敬의 뜻을 올립니다.

끝으로 한가지 보고 올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말씀 올렸습시다마는 2003年 2月 4日 뉴욕 UN本部에서 國際刑事裁判所 初代裁判官으로 選출된 바 있는 先生님의 宗孫 宋相現 博士는 우리들의 期待대로 名實共히 世界の 法學者로서의 所任을 다하고 있습니다. 任地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世界の 司法과 平和를 爲해 盡力하면서 國威宣揚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쁜 中에서도 先生님을 모시려는 宋박사의 精誠은 참으로 대단한 바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感動을 주고 있습니다.

先生님의 誕辰을 祝賀하는 자리이지만 逝去 60주년이 되고 보니 두고두고 아쉽고 가슴 아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다만 先生님의 遺德이 길이길이 빛나고 있는 사실에 다소간의 自慰感을 느낄 뿐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들을 계속 돌봐 주시기를 祈願하면서 追慕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2005. 5. 7.

紀念事業會 理事長 權彝赫 올림